

우리말 ㅎ 음운도치와 불연속형태 h-Metathesis and Discontinuous Morphs in Modern Korean

兪萬根(성균관대)

Hansa Mahn-Gunn Youe
Saunggyoun-Gwan University

현대 한국어에 ㅎ 음운도치 현상이 있는데 주로 두가지 문법범주에 나타난다.

첫째는 「암탉/수탉」처럼 「암」(female), 「수」(male)에 이어지는 명사초성 파열음에서 생기고, 그 다음은 「농고/밭지」처럼 용언 어간말음 ㅎ 소리와 그것에 이어지는 어미초성 파열음, 파찰음 사이에서 생긴다.

첫째 경우에는 정서법이 음운도치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둘째 경우에는 어간·어미를 갈라적는다는 기준에 따라 대개 발음순서와 철자순서가 다르게 되어있다. 이 글의 초점은 현행 한글맞춤법상 이렇게 발음순서와 철자순서가 어긋남을 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그 철자방식을 비판하면서 한글맞춤법 개선을 위해 ㅎ 받침 효용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1. 「암/수」의 경우

가령 「암탉/수탉」처럼 전통적, 관용적인 말은 음운도치 현상을 제대로 보인다. 예컨대,

강아지 : 암/수강아지	(puppy) gangajy : am-/sou-khangajy
개 : 암/수개	(dog) gaih : am-/sou-khaih
거미 : 암/수커미*	(spider) gaumy : am-/sou-khaumy
것 : 암/수컷	(thing) gaud : am-/sou-hkaud
게 : 암/수게	(crab) geh : am-/sou-kheh
고양이 : 암/수코양이	(cat) goyangy : am-/sou-khoyangy
곰 : 암/수곰*	(bear) gohm : am-/sou-khohm
구렁이 : 암/수쿠렁이*	(large snake) gouraungy : am-/sou-khouraungy
기와 : 암/수키와	(roof tile) giwa-am-/sou-khiwa
닭 : 암/수닭	(domestic fowl) dag : am-/sou-thag
당나귀 : 암/수탕나귀	(donkey) dangnagwy : am-/sou-thangnagwy
돌쩌귀 : 암/수톨쩌귀*	(peg-and-eye hinge) dohlzcaugwy : am-/sou-thohlzcaugwy
돼지 : 암/수돼지	(pig) dwaihjy/dwehjy : am-/sou-thwehjy

벌 : 암/수벌*	(bee) beuhl : am-/sou-pheuhl
범 : 암/수범*	(tiger) beuhm : am-sou-pheuhn
병아리 : 암/수 병아리	(chick) byaungary : am-/sou-phyauungary
비둘기 : 암/수피둘기*	(pigeon) bidoulgy/bidulgy : am-/sou-phidulgy

*사전에 따라 거센소리 없이 표기한 예도 보이는 것.

그런데 지금 「암/수」에 딸린 ㅎ 소리가 차차 퇴화현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새로 만드는 말, 가령 「(똑딱)단추 : 암/수단추」 (togtag)danchou : am-/sou-danchou에서는 그 ㅎ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 사전편찬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 철자가 전통유지 발음을 보이는 것과 전통외면 발음을 채용한 것으로 나뉜다. (위에서 *표 경우 참조)

그리고 「수」(male)의 경우에는 변이형태로 「숫」[슌/슘]도 있는데,

숫오리 sou-d-ohry, 숫오소리 sou-d-osory, 숫오징어 sou-d-ojingau, 숫왕잠
자리 sou-d-wangjamjary, 숫원숭이 sou-d-weuhnsoungy,
숫은행나무 sou-d-unhaingnamou, 숫잠자리 wou-d-jamjary,
숫족제비 sou-d-jogczeby, 숫쥐 sou-d-jwy,
숫송아지 sou-s-songajy

숫나비 sou-n-naby, 숫노루 sou-n-norou, 숫말 sou-n-mal,
숫무지개 sou-n-moujigai, 숫양 sou-nn-yang,
숫여우 sou-nn-yauou, 숫여치 sou-nn-yeuhchy,
숫염소 sou-nn-yaumso, 숫이리 sou-nn-iry, 숫잉어 sou-nn-ihngau

그리고 새 말에 전통적 ㅎ 음운도치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수가 많다.

고래 : 고래 암놈/숫놈 (수놈)
고릴라 : 고릴라 암놈/숫놈
귀뚜라미 : 귀뚜라미 암놈/숫놈
다람쥐 : 다람쥐 암놈/숫놈
당뎨 : 당뎨 암놈/숫놈
딩고(dingo) : 덩고 암놈/숫놈

「평」같은 된소리 경우에는 「암평/수평」이 「암핑/수핑」으로 이미 바뀐 듯하고 「암꽃술/수꽃술」같은 새말에서는 물론 거센소리가 나지 않는다. 「암/수」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특례도 있다.

가루+것→가루컷 (garou+gaud→garoukhaud)
 밀+것→밀컷 (mil+gaud→milkhaud)
 머리+가락→머리카락 (maury+garag→maurikharag)
 살+고기→살코기 (sal+gogy→salkhogy)
 삶+팽이→살팽이 (sag/sal+gwaihngy→salkhwaihngy)

위에서 지금까지 ㅎ 음운도치 (h-metathesis)와 불연속형태 (discontinuous morph) 예를 많이 보았지만 모두 철자가 발음을 제대로 따른 것이라 여기서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다.

2. 용언(action verb/state verb)

용언 어간끝 ㅎ 소리와 어미초성 파열음, 파찰음 사이에서 생기는 음운도치는 대체로 정연하게 일어난다.

〈동사(action verb)〉	〈형용사(state verb)〉
놓다가 nothaga, 놓도록 nothorog	놓다 johtha, 놓도록 johthorog
놓고 nokho, 놓기 nokhy	놓고 johkho, 놓기 johkhy
놓지 nochi, 놓자 nocha	놓지 johchi
끓다가 kunthaga, 끓도록 kunthorog	끓다 mahntha, 끓기 mahnkhy
끓지 kunchi, 끓자 kuncha	끓지 mahnchi
달다가 dalthaga, 달도록 dalthorog	달다 oltha, 달도록 olthorog
달고 dalkho, 달기 dalkhy	달고 olkho, 달기 olkhy
달지 dalchi, 달자 dalcha	달지 olchi

다만 현행맞춤법에서 「달다」로 적는 동사가 서울말에서 「닷다 dahdta, 닷도록 dahatorog, 닷지 dahdczi, 닷자 dahdcza」처럼 ㅅ 받침 변칙동사로 활용되며, 「어떻게」는 [어떠게] 대신 [어터게]로 발음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리고 「-하다」 앞에 똑같은 음절이 두 번 중복되면서 그 음절 말음이 파열음일 때 「-하지」(+않다/못하다)의 준말이 「-치」로 되지 않고 ㅎ 요소가 제거된 「-지」만 발음된다.

섭섭지 않게 saubssaubczi ankhe
 텃텃지 않은 taudtaudczi anhun
 녀녀지 못한 naungnaugczi mohd-han
 똑똑지 못하게 togtogczi mohd-hage

거꾸로 「서슴지」(서슴다)를 거세계 「서슴치」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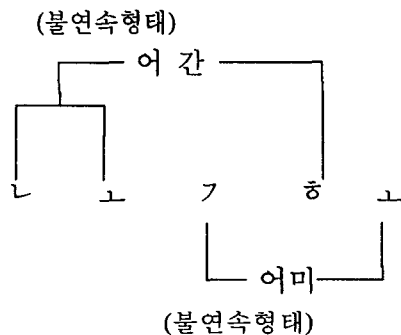
준발음은 아니다. (그 명사형 「서슴음」을 한 음절 줄여 「서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잘못이다. 「서슴다, 서슴지, 서슴음 없이」가 옳다.)

그리고 <(명사)+다>의 구조 「꿍기다」는 그 발음이 [끈키다]지만 피동형 「꿍어지다/꿍이다」의 남부방언 「꿍기다」는 「끈기다」로 발음되는 듯하다.

3. 철자 문제

용언에서도 「아니치, 적절치, 예컨대, 결코…」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몇 있지만 대개 어간에 ㅎ 받침을 쓰기 때문에 소리나는 순서와 철자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 소리나는 순서와 어간-어미 분석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놓고」[노코]의 경우>



즉, 어간, 어미가 서로 엇물려 들다 불연속형태(discontinuous morph)가 되어 있다.

참고로 영어에서 음운도치(metathesis)와 철자 문제를 보면 소리나는 순서와 철자순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axian→ascian(ask), brid→bird, thridda→third

음운이 도치되면 이렇게 도치된 대로 적어주는 것이 순리다. 지금 우리가 쓰는 ㅎ 받침은 마치, 한국어에 당치않은 선행첨기(先行添氣, pre-aspiration) 철자처럼 되어있는데, 제언컨대, 한글철자에서도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있는 현행 ㅎ 받침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그것을 순리적이면서 좀더 쓸모있는 쪽(예컨대 긴모음 표시기호 같은 것)으로 돌렸으면 한다.